

파니움 - 넘버 세븐

다니엘 11장 베일을 벗다: 1989년부터 일요일법령까지의 예언의 줄기들

Jeff Pippenger

2025-03-15

우리는 미국의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곧 1989년부터의 시기를 나타내는 40절의 숨겨진 역사와 관련하여 다니엘 11장의 모든 맥락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학생들로서 우리의 소명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보이기 위해 힘쓰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루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 디모데후서 2:15.

다니엘서 11장은 열 개의 예언의 줄로 나눌 수 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의 예언의 줄을 이룬다. 5절부터 9절까지가 둘째 줄이다. 10절은 셋째 줄이다. 11절과 12절은 넷째 줄이다. 다섯째 줄은 13절부터 15절까지이다. 여섯째 줄은 16절부터 22절까지이다. 일곱째 줄은 23절과 24절이다. 24절부터 31절까지는 여덟째 줄이다. 31절부터 40절까지는 아홉째 줄이고, 열째이자 마지막 줄은 40절부터 45절까지이다. 이 열 개의 줄은 줄에 줄을 더하여 한데 모아야 한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교훈을 깨닫게 하겠는가? 젖을 떤 자들, 젖가슴에서 떼어진 자들이나?

이는 교훈 위에 교훈, 교훈 위에 교훈; 구절 위에 구절, 구절 위에 구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는 더듬거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를 쉬게 하는 안식이요, 이것이 새롭게 함이라." 그러나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에게 명령에 명령을 더하고, 명령에 명령을 더하며, 규례에 규례를 더하고, 규례에 규례를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라 하시는 것이 되어,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하심이였다. 이사야 28:9-13.

열 개의 예언적 구절 각각은 물론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각 구절 안에서는 특정한 주제를 식별할 수 있다. 각 구절마다 주된 주제가 있긴 하지만, 그 구절들은 단일한 증언 이상의 것을 지닌다. 나는 그 열 개의 구절에 담긴 각 주제를 밝혀내고자 한다.

첫 번째 줄

또한 나, 메대 사람 다리오의 첫째 해에, 나도 그를 확고히 세우고 강하게 하려고 썼느니라. 이제 내가 네게 진리를 보여 주리라. 보라, 페르시아에는 아직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요할 것이니, 그는 자신의 부요함으로 얻은 힘으로 헬라의 나라를 대적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리라. 또 한 강한 왕이 일어나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일어난

뒤에 그의 나라는 깨뜨려져 하늘 사방으로 나뉘어질 것이며, 그의 후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그가 다스리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의 나라가 뿔뿔히 그 밖의 다른 자들에게 넘어갈 것임이라. 다니엘 11:1-4.

다리오의 첫해는 칠십 년의 끝을 가리키며, 이로써 예언적 종말의 때를 특정한다. 3절에 이르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의 세계 제국을 세우고, 4절에서는 그의 왕국이 뿔뿔히 네 바람을 따라 나뉘게 된다. 1989년의 종말의 때를 다리오로 설정하면 2절에 나타난 왕들의 수를 헤아릴 수 있다. 가브리엘이 1절에서 "또 다리오 원년에"라고 말할 때, 그는 10장에서 시작된 그 환상의 처음에 다니엘에게 알려 준 내용을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삼년에 벨드사살이라 불리던 다니엘에게 한 말씀이 계시되었는데, 그 말씀은 참되었으나 정한 때가 길었더라. 그는 그 말씀을 깨달았고 그 환상을 이해하였다. 다니엘서 10:1.

'끝의 때'를 대표하는 이정표에는 두 가지 상징이 있다. 모세의 예언적 계통에서 '끝의 때'는 아론의 출생이었고, 그로부터 삼 년 후에 모세의 출생이 뒤따랐다. 아론과 모세는 그들의 역사에서 '끝의 때'의 이중 상징이 되며,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로부터 여섯 달 후의 예수의 출생을 예표한다. 1798년의 '끝의 때'는 로마의 교황이 체포된 사건으로 표시되었고, 그는 이후 1799년에 감금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메대 사람 다리오의 원년'에서 '바사 왕 고레스의 제삼년'까지, 다리오와 고레스는 1989년의 '끝의 때'를 대표한다. 이는 모든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살던 시대보다 말세에 대하여 더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일어났고, 또한 그것들은 세상의 끝이 임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11.

다리오와 고레스는 1989년에 로널드 레이건과 조지 부시 시니어를 상징한다. 그해 두 사람 모두 대통령이었다. 제11장 1절은 그 환상을 고레스 제3년에 두고 있는데, 이는 고레스가 다리오를 이은 것처럼 레이건을 이은 조지 부시 시니어를 대표하는 것이다. 2절은 앞으로 세 왕이 또 일어날 것이며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더 부유하다고 진술한다. 제11장의 최종적인 '끝의 때'는 1989년에 시작되며, 조지 부시 시니어 이후에 또 세 왕이 일어날 것임을 밝혀 부시 시니어를 이은 세 대통령을 지목한다. 그 세 왕은 빌 클린턴, 조지 부시 주니어, 버락 오바마였고, 이어 가장 부유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그의 힘으로' 또 '그의 재물을 통하여 그는 헬라의 나라를 대적하여 모든 자들을 격동시킬 것이다'.

셋째 절은 알렉산더 대왕을 소개하며, 따라서 마지막 때에 교황권과 연합하는 유엔의 마지막 지도자를 예표한다. 그러나 그는 교황권과 마찬가지로 그 끝을 맞는다. 유엔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열 왕으로 상징된 일곱째 왕국이며, 그 열 왕의 연합은 상징적인 한 시간 동안 그들이 다스리는 일곱째 왕국을 교황권의 짐승에게 넘기기로 동의한다.

네가 본 열 뿔은 아직 나라를 받지 못한 열 왕들이지만, 짐승과 함께 잠시 동안 왕으로서 권세를 받을 것이다. 이들은 한 마음을 품고 자기들의 권세와 힘을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과 싸울 것이나, 어린 양은 그들을 이길 것이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신실한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7:12-14.

그 열 왕은 3절과 4절에서 묘사되며, 4세기에 그 구절들을 성취한 알렉산더 대왕의 흥망성쇠의 역사로도 나타난다. 그리스는 성경 예언의 세 번째 왕국이며, 용을 상징하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 가운데 3분의 1을 이룬다.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가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있게 될 유대인과 로마인,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서 온 나머지 무리를 가리켰다. 그리스인은 용을 상징하고, 로마인은 짐승을 상징하며, 유대인은 거짓 선지자였다.

제11장의 처음 네 절은 인류의 은혜의 시기가 마감될 때 교황권과 음행하는 지상 용의 세력의 종말을 밝힌다. 3절과 4절은 지상 용의 세력이 마지막으로 나타나 부상하고 몰락하는 최후의 과정을 밝힌다. 이 절들은 땅의 왕들과 음행하는 짐승의 종말을 밝히는 마지막 여섯 절과 겹쳐진다. 제11장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돕는 자 없이 그들의 끝에 이르는 역사를 밝힌다. 처음 네 절이 마지막 여섯 절과 상응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처음 네 계명의 판과 마지막 여섯 계명의 판을 통해 십계명의 상징성을 지니고, 동시에 숫자 열로 시험을 상징한다.

첫 네 구절은 결말을 비추어 보여 주는 시작을 나타내며, 그 메시지가 1989년의 ‘종말의 때’에 시작됨을 고정한다. 이 구절들은 1989년부터 인류를 위한 은혜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를 나타내며, 따라서 1989년에 봉인이 풀리며 지식이 증가한 내용, 곧 은혜의 기간의 종결과 관련된 사건들을 밝혀 주는 마지막 여섯 구절의 메시지를 요약한다.

그 구절들은 1989년부터 총 여덟 명의 대통령이 있을 것이며, 여덟째는 앞선 일곱 대통령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보게 하는 예언적 기준점을 제공한다. 이로써 본문은 ‘여덟째가 일곱에 속한다’는 수수께끼와 연결되는데, 이는 말세에서 현재의 진리로 제시되는 예언적 특징이다.

이 구절들에서 이해되는 주제는 두로의 음녀와 음행하는 용의 권세의 최후의 멸망이다. 그 음녀는 땅의 모든 왕들과 음행하지만, 496년에 클로비스가 자신의 왕좌를 교황권에 봉헌함으로써 고대 프랑스가 가톨릭 교회의 장자가 되었던 것과 같이, 미국을 대표하는 땅의 짐승도 일요일 법령 하에서 그 음녀와 음행하는 왕들 가운데 첫째가 될 것이다. 마지막 여섯 절에서 그러한 것처럼, 처음 네 절 또한 세상을 아마겟돈으로 이끄는 세 가지 권세를 모두 식별하고 강조하지만, 처음 네 절의 주제는 그리스와 알렉산더 대왕으로 대표되는 용의 권세이다.

레이건은 여덟 명의 대통령에 걸친 과정을 시작했고, 그 과정은 이제 그 여덟 명 중 마지막 대통령에게 이르렀다. 여덟 번째 대통령은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미국에서 일요일 법을 시행하는 한편, 자신을 유엔의 수장으로 만드는 합의를 중개할 것이며, 유엔은 바로 그 시점에 급진 이슬람의 격화되는 전쟁을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전 세계적 정교일치 관계로 들어갈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미국이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에서 성경 예언의 일곱째 왕국의 머리로 전환되고, 성경 예언의 여덟째 왕국과의 불법적인 관계를 완성하는 그 과정은, 1989년을 지목하는 1절에서부터 시작해 미국의 일요일법으로

이어지는 대통령들을 통해 묘사되며, 이어 곧바로 일어서는 강력한 왕을 지목한다. 그 강력한 왕은 유엔을 장악하고 있는 트럼프로, 그는 자신의 요구를 앞두고 지금 그 기구를 해체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두 번째 줄

5절부터 9절은 장 전체가 주된 예언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의 전쟁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그 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한다. 5절은 이 본문의 주제를 제시한다.

남쪽의 왕이 강해질 것이며, 그의 고관들 중 한 사람도 강해질 것이다. 그 고관은 그보다 더 강해져 통치권을 잡을 것이며, 그의 권세는 매우 클 것이다. 다니엘 11:5.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와 셀레우코스 1세 니카토르는 그 구절에 등장한다. 두 사람 모두 알렉산더의 왕국을 이은 '디아도키'(후계자라는 뜻) 네 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셀레우코스는 11장에서 최초의 '북방 왕'으로 언급되며, 이교 로마, 교황 로마, 현대 로마의 견해와 일치하게, 그는 세 가지 주요한 승리 또는 중대한 사건 이후에야 예언적인 '북방 왕'으로 확립되었다. 곧 기원전 312년의 바빌론 수복, 기원전 301년의 입수스 전투, 기원전 281년의 코루페디온 전투이다. 이러한 일련의 승리와 사건은 그의 주요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그의 제국을 확장했으며, 그 지역에서의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

두 번째 대목은 알렉산더의 분열된 왕국의 다른 어떤 후계자들(디아도코이)과는 구별하여 북방왕과 남방왕을 특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북방왕이 오직 세 차례의 정복 이후에야 비로소 권세를 부여받는다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 전개된 지배권 쟁탈의 역사 가운데, 6절에서 9절은 남방왕이 북방왕을 전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한 기간을 가리킨다. 이는 11장에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이기는 세 차례 중 첫 번째이다. 이 세 차례는 장 내부에서 세 가지 내적 증거를 제공하여, 남방왕이 북방왕을 패배시키는 데 이르는 역사의 이정표들을 분명히 확립한다.

남방의 왕은 강성할 것이요, 그의 방백들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러하리라. 그는 그보다 더 강하여 권세를 잡을 것이니, 그의 권세는 큰 권세가 되리라. 여러 해의 끝에 그들이 서로 결합하리니, 남방 왕의 딸이 화친을 이루려고 북방 왕에게 올 것이라. 그러나 그녀는 팔의 권세를 보존하지 못할 것이요, 그도 서지 못하며 그의 팔도 그러하지 못하리라. 오히려 그녀와 그녀를 데려온 자들과 그녀를 낳은 자와 그때 그녀를 강하게 하던 자가 넘겨지리라. 그러나 그녀의 뿌리에서 난 가지 가운데 한 사람이 그의 자리에 일어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북방 왕의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대적하여 싸워 이기리라. 또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방백들과 은과 금의 귀한 그릇들을 사로잡아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며, 그는 북방 왕보다 더 많은 해를 지내리라. 이와 같이 남방 왕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리라. 다니엘 11:5-9.

그 구절들의 역사적 성취는 31절부터 40절에 언급된 교황권의 1,260년 통치가 예언적으로 성취되는 데 대한 틀을 제공하며, 기원전 217년 라피아 전투에서 처음 성취된 11절의 성취를 위한 예언적 틀도 제공한다. 그 세 증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을 밝혀 주는데, 그 전쟁에서 남방의 마지막 왕인 푸틴이 교황의 북방 왕의 대리군대를 이길 것이다.

예언적 역사에서 두 번째 흐름의 주제는 1798년에 교황권이 어떻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가 하는 것으로, 이는 5절부터 9절과 11절의 라피아 전투로 묘사된다. 남방의 왕, 곧 이집트는 용의 권세이다.

인자야, 네 얼굴을 애굽 왕 바로를 향하게 하고 그와 온 애굽을 대적하여 예언하라.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애굽 왕 바로야, 그의 강들 가운데 누워 있는 큰 용아,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네가 말하기를 '내 강은 내 것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었다' 하였느니라. 에스겔 29:2, 3.

11장에서 남방 왕이 북방 왕을 이기는 세 가지 사례는 함께 45절에 나타난 북방 왕의 최후의 몰락을 가리킨다.

그가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 곧 바다와 바다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그를 도울 자가 없으리라. 다니엘 11:45.

11장에는 남방의 왕이 북방의 왕을 물리치는 것을 보여 주는 세 구절이 있지만, 북방의 왕이 아무의 도움도 없이 종말을 맞는 부분은 그리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사름으로써 그녀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바로 용의 권세임을 밝힌다. 요한계시록에서 그 용의 권세를 알아보면, 45절에서 북방의 왕을 무너뜨리게 될 왕들—곧 용이기도 하고 남방의 왕이기도 한 자들—을 볼 수 있다. 이 장에는 세 가지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연결을 통해 제시된 바와 같이 그 완전한 성취를 모두 증언하고 있다.

현대의 교황권적 북방 왕은 45절에서 도와줄 자 없이 그의 종말을 맞고, 요한계시록은 교황권이 용의 권세의 손에 의해 어떻게 종말을 맞게 되는지를 밝힌다.

네가 그 짐승 위에서 본 열 뿔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그녀를 황폐하게 하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태울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에 넣으셔서 한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7:16, 17.

열 왕들은 교황의 북방 왕을 불로 사르고 그 살을 먹는다. 말세의 왕들은 용의 세력이다.

"왕들과 통치자들과 총독들은 자신들에게 적그리스도의 낙인을 찍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인 성도들과 싸우러 나아가는 용으로 묘사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적개심으로, 그리스도 대신 바라바를 택한 죄를 저지른 자들임을 또한 스스로 드러낸다." 목회자들에게 주는 증언, 38쪽.

열 왕은 용의 권세로, 이는 또한 그리스 왕국과 알렉산더로 대표된다. 그 왕들은 남방의 왕들이다. 이는 그들이 이집트의 왕 바로로 대표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녀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시편 기자가 "악인의 회중"이라고 부르는 예언적 "개들"이기 때문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며, 그들이 내 손과 발을 꿰뚫었나이다. 나는 내 모든 뼈를 다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보고 응시하나이다. 그들이 내 의복을 자기들 사이에서 나누고, 내 옷을 두고 제비를 뽑나이다. 시편 22:16-18.

교황권은 45절에서 북방의 왕이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로 상징된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네가 자칭 여선지자라 하는 그 여인 이세벨을 용납함으로, 그 여인이 내 종들을 가르치고 미혹하여 음행하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다. 또 내가 그에게 그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 요한계시록 2:20-22.

이세벨에 대한 심판은 그녀가 개들에게 먹힐 때 이루어진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세벨에 대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열왕기상 21:23.

개들은 이교 로마, 곧 용의 세력이다. 이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이교 로마였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 속에서 예언이 성취되었다. 십자가형에 처해지시기 수세기 전에, 구주께서는 자신이 받으실 대우를 미리 예고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인들의 회중이 나를 에워쌌나이다.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찢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보고 응시하나이다. 그들이 내 겹옷을 자기들끼리 나누고,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나이다." 시편 22:16-18. 그분의 의복에 관한 예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친구들이나 원수들의 어떤 의논이나 간섭도 없이 이루어졌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병사들에게 그분의 옷이 주어졌다. 그들이 그 옷을 서로 나눠 가지며 다투는 소리를 그리스도께서 들으셨다. 그분의 속옷은 술기 없이 통으로 짜여 있었으므로 그들이 말하였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구의 것이 될지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자." 시대의 소망, 746.

개들이며 악인의 회중이며 그리스와 이집트이기도 한 열 왕들은 또한 음녀를 불로 사를 것이다.

어느 제사장의 딸이든지 음행하여 자신을 더럽히면,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녀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레위기 21:9.

열 왕이 그 창녀를 불로 태우는데, 그녀는 여사제라고 자처하지만 실은 창녀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 두로는 한 왕의 날수에 따라 칠십 년 동안 잊혀질 것이요, 칠십 년이 끝나면 두로가 창녀처럼 노래하리라. 수금을 잡고 성읍을 두루 다니라, 잊혀진 창녀여; 고운 가락을 타고, 많은 노래를 불러라, 네가 기억되게 하려 함이라. 칠십 년이 끝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찾아오시리니, 두로는 다시 그 샅으로 돌아가며, 온 지면의 모든 왕국들과 음행하리라. 이사야 23:15-17.

5절부터 9절, 그리고 31절부터 40절에서, 우리는 용의 세력에 의해 교황권이 그 끝에 이르게 됨을 증거하는 바를 발견한다. 이 원리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성취되고 있다. 이 세 증인은 45절에서 북방 왕이 그를 도와줄 자 하나 없이 그의 끝에 이를 때, 용이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그녀를 사를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세 증인의 증언에

근거하여, 용의 행위의 동기에는 파기된 조약이 포함될 것이다.

5절에서 9절에서는, 제2차 시리아 전쟁이 기원전 253년에 조약으로 종결되었다. 이 전쟁은 기원전 260년에 시작되었고, 전쟁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남방 왕이 자신의 딸을 북방 왕에게 주어, 북방 왕이 남방 왕의 딸과 혼인하고 혼인 동맹을 통해 평화를 이루도록 하는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 혼인으로부터 7년 뒤인 기원전 246년에 북방 왕은 남방 출신의 신부를 폐하고, 이집트 공주와 혼인할 때 내쳤던 본처를 복위시켰다. 남방 왕이 북방 왕국을 침공하고 북방 왕을 사로잡으려 한 동기는 파기된 조약이었다.

그 파기된 조약은 1797년의 톨렌티노 조약 파기를 예표하였는데, 그 파기는 나폴레옹에게 1798년에 교황을 포로로 잡아가게 할 동기를 제공하였다. 이는 프톨레마이오스가 기원전 246년에 셀레우코스를 사로잡았던 것과 같았다.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셀레우코스 2세가 다스리던 북방의 셀레우코스 제국에 대한 승리를 거두고 이집트로 돌아왔을 때, 그는 너무나 많은 보물을 이집트로 가져왔으므로, 이집트인들은 오랜 세월 사로잡혀 있던 그들의 "사로잡힌 신들"을 회복시킨 공으로 프톨레마이오스 3세에게 "에우르게테스"('은인'을 뜻함)라는 칭호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그녀의 뿌리의 한 가지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 그의 자리에 설 것이며, 그는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북방의 왕의 요새에 들어가 그들을 대적하여 이길 것이다. 또한 그는 그들의 신들과 그들의 귀족들과 은과 금으로 된 귀한 그릇들을 포로로 삼아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며, 그는 북방의 왕보다 더 많은 해를 지낼 것이다. 다니엘 11:7, 8.

1798년에 나폴레옹이 교황을 사로잡았을 때 그는 바티칸의 재보를 약탈하여 프랑스로 가져갔다. 이는 프톨레마이오스 3세에게서 예표된 바와 같다. 그는 보물과 함께 셀레우코스 2세까지 이집트로 끌고 갔고, 셀레우코스 2세는 그곳에서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것은 1798년에 나폴레옹이 교황권을 짐승에게서 분리시킨 것과 1799년에 교황이 사망한 것을 예표하였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교황권은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로 제시되며, 셀레우코스의 패배와 포로됨 및 이어지는 낙마로 인한 사망은, 나폴레옹이 교황권의 세속 권위(요한계시록 17장에서 짐승으로 표상됨)를 제거한 것을 예표한다.

그래서 그는 나를 영으로 광야로 데려갔고, 나는 신성모독의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 한 여자를 보았다. ...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녀를 태우고 있는,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 주겠다. ...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통치하는 그 큰 성이다. 요한계시록 17:3, 7, 18.

5절부터 9절은 11장에서 북방의 왕과 남방의 왕 사이의 전쟁을 소개한다. 5절은 북방의 왕이 최고 권세로 통치하게 되기 전에 세 개의 지리적 지역을 정복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북방의 왕을 로마로 특정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 구절들은 북방의 왕이 통치하지만 결국 그 끝에 이르게 되는 한 시기를 제시하는 예언적 구조를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11장의 전제이자 약속이다. 그 전개的主題는 교황적 북방의 왕의 치명적인 상처이며, 45절이 말하듯이, "그는 도와줄 자 없이 그의 끝에 이른다." 이 진리는 마지막 때의 현재의 진리이다.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